

90년대 한국을 찾아왔던 세계의 문학

남미 동구 등 다양한 언어권 작가 소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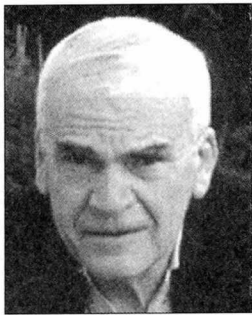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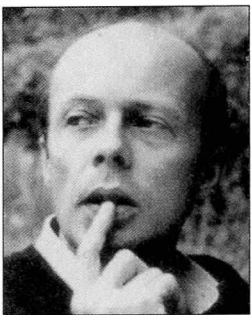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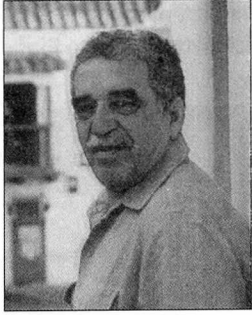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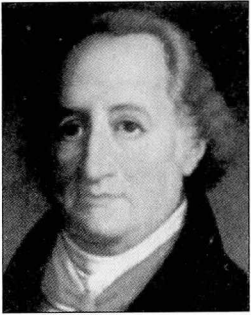
■ 남미 등 언어권 영역 넓혀가

여러 언어권으로 그 영역을 넓혀간 번역 문학의 흐름은 남미문학이 물꼬를 텄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마르케스를 시작으로 옥타비오 파스, 파블로 네루다, 로르카, 케케도의 시집과 보르헤스, 요사, 푸엔테스 등이 번역됐고, 최근 마누엘 비스카스 몬탈반, 안토니오 스메르카타 등이 이어졌다. 남미 작품들은 역사적 경험이 식민지·내전·군부독재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접근이 쉬운 데다 문학성이 뛰어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사르트르·카뮈를 앞세운 프랑스 문학이 번역 문학의 중심이 된 지는 오래지만 90년대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온 것은 기억할 만하다. <개미>의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좀머씨 이야기>로 90년대를 평정한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그들. 최근에는 <좀머씨 이야기>의 삽화가 상폐의 책이 인기몰이에 나섰다. 해외 베스트셀러나 'OO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에만 의지해 온 풍토에 새 바람을 일

90년대 번역문학의 가장 큰 수확은 다양한 언어권의 문학이 소개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영미권에 편중됐던 것이 동구·남미는 물론 이란·터키 등 생소한 나라까지 넓어졌다. 거대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 옮아온 사회적 분위기는 하루키 소설을 필두로 한 사소설 성향의 일본 현대문학의 인기로 이어졌고,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책읽기는 법정·의료 추리소설과 최루성 멜로 붐을 끌어냈다. 한편, 19세기 대문호들의 전집 출간 작업도 활발했다. 괴테·울프·헤세·카프카 등이 오랜 준비 끝에 전집의 결실을 맺거나 출간을 기획·시작했다.

으킨 것. 그 때문인지 이란(아민 말루프), 터키(오르한 파묵·아흐멧 알탄), 그리스(안토



윗줄 왼쪽부터 괴테·마르케스·쥐스킨트·쿤데라.

모방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하루키·바나나의 소설은 개인의 내면을 파고드는 사소설적인 전통에 기대 거대 담론이 사라진 90년대를 풍미했고, 그 열기는 아직도 여전하다. 평론가들은 90년대 초 이념의 공황 가운데 서성이는 우리 젊은이들의 좌절감과 소외감이 전공투 뒷세대인 일본작가의 작품과 유사했다는 분석이다.

■ 19세기 고전문학은 꾸준히 소개

새삼스럽게 19세기 대문호들의 전집 출간이 90년대 계속 이어진 것은 이제까지 행했던 줄속번역·중역·오역 등을 바로 잡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유명작품 몇몇에 한정돼 작가의 전모를 알 수 없었던 것과 현대적 감각에 맞는 문체와 편집을 젊은 세대들이 요구한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괴테전집은 예하와 민음사에서 출간 중인데, 예하는 괴테학회(위원장 지명렬)에서 독일 함부르크판 전집을 대본으로 전28권으로 내고, 민음사는 94년 고려대를 퇴직한 박찬기 교수가 내놓은 퇴직금 1억 5백만원을 밑천으로 전18권 출간한다. 특히 민음사는 셰익스피어·헤세·톨스토이 전집도 펴낸다.

출판사는 카프카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일부 출간하고 <돈 키호테>로 근대소설의 문을 연 세르반테스 전집도 '오늘의 책'에서 내고 있다. 95년에 출간 예고됐던 열림원출판사의 도스토예프스키·푸쉬킨 전집은 아직도 작업 중이고, 미래사에서 내는 마크 트웨인 전집도 관심을 모았다.

19세기 고전 출간 붐은 우선 실용적 목적이 크다는 분석. 작가의 인지도가 높고, 이미 저작권 시효가 만료돼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의 전환기라는 점에서 19세기 작품에서 드러난 인물들의 고민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정서적 보편성이 독자를 모으는 내용적 분석도 있다. 하지만 번역 문학의 수준을 한단계 올린다는 점에서, 또 개인전집을 통해 영성한 우리 고전 목록을 알차게 채워주리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 크다.

— 이현주 기자

최고 인기 외국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

쿤데라·무라카미 류도 20종 이상 번역

90년대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로 꼽혔다. 무려 48종. <노르웨이의 숲>·<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양을 돌려싼 모험>과 최근 <하루키의 여행법> 등이 앞다투어 나왔다. 밀란 쿤데라 역시 인기가 높다. 대표작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부터 <정체성>까지 소설과 문학이론서를 포함해 24종이 출간됐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이 22종의 무라카미 류. 예하에서 나온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가 조용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후 요시모토 바나나 등 일본 작가들이 줄을 이었다.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작가와 작품은 90년대 초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언급된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이 91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보인다. 여성 취향의 멜로가 인기를 끌어 <러브 스토리>의 작가 에릭 시걸의 <닥터스>, 앤 타일러의 <종

이시계>, 리처드 힐러 <지상에서 가장 슬픈 약속>, 하퍼 리 <앵무새 죽이기>가 많이 팔렸다.

90년 중반은 존 그리섬과 로빈 쿡의 추리소설이 많이 읽혔다. 최고 로열티로 화제를 모았지만 추리소설본의 막자를 탄 <모레> (전3권)는 60만부 가량 팔렸지만 본전은 못 건졌다. 그 후 번역소설의 인기는 '기현상'으로 일컬어진 90년대 최고 화제작 파트리크 쥐스킨트 <좀머씨 이야기>로 모아졌다. 92년 번역돼 3년 후인 95년 한해만 45만부 판매됐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독자들이 찾고 있다.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번역소설의 열기는 장 자크 상페로 이어져 5종 정도가 나와 모두 호응을 얻고 있다. 90년대 말, 스텔라 코치의 <링>은 공포·환상문학에 경도된 독서행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베스트셀러목록에 우뚝 서 있다. (이현주)



니스 사마라키스, 포르투갈(주제 사라마구), 이스라엘(아모스 오즈), 이탈리아(이탈로 칼비노·수잔 타마로) 등 낯선 국적의 작가들이 많이 선보였다.

■ 추리소설과 멜로물도 인기

90년대 번역문학의 관심은 개인의 삶으로 옮겨왔다. 그 징후가 90년대 초반, 법정·의료추리소설이 반짝 인기였고, 90년대 전반을 장악한 최루성 멜로, 그리고 젊은이들은 중심으로 읽히기 시작한 일본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다. 열림원에서 나온 로빈 쿡의 메디컬 미스터리와 시공사에서 나온 존 그리섬의 책들은 감각적 재미를 추구하는 신세대들의 입맛에 맞았다. 이들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던 94년에는 고작해야 1천종 안팎이던 번역문학 종수가 2천종 가까이까지 폭증했다. 또, 알란 폴심의 <모레>가 20만부이라는 당시 최고 로열티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건'까지 만들었다.

91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천국엔 새가 없다>·<금잔화>·<지상에서 가장 슬픈 약속>·<닥터스>·<세상의 모든 딸들>·<앵무새 죽이기>·<매디슨카운티의 다리> 등이 멜로붐을 주도했다. 한편, 국내 소설의 혼성